피천득

오동은 천 년 늙어도
가락을 지니고

매화는 일생 추워도
향기를 팔지 않는다.

달은 천 번 이울어도
다시 둥글어지고

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
새 움을 틔운다.

- 무지개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잠깐 보고 고개를 돌리지만 이 시는 넓고 깊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와 영혼과 생명을 말게 씻어준다.